

이토록 가까운 미래

정신이 몽롱하다. 흐린 시야 사이로 흔들리는 차선이 보인다. 핸들이 불안하게 흔들려서 손에 힘을 쥐어보지만 아무런 감각이 느껴지지 않는다. 그대로 중앙선을 넘어서고 맞은 편에 달려오던 트럭과 ‘쿵’.

눈이 번쩍 떠진다. 숨이 가쁘고 심장이 빠르게 뛴다. 반복되는 상황임에도 여전히 놀라고, 여전히 안도한다. 이것은 사람들이 말하는 예지몽이다. ‘미래’를 볼 수 있는 꿈. 따라서 나는 오늘 도로 위에서 죽을 예정이다.

다행히도 예정된 미래를 비껴갈 수 있다. 예정된 루틴을 조금 바꿔주면 된다. 운전을 하다 죽을 예정이라면 지하철을 타면 되고, 살인범을 만날 예정이라면 그 장소에 가지 않으면 된다. 예지몽 덕분에 나는 오늘 지하철을 탔고 죽음을 모면했다.

원래는 죽는 꿈을 꾸지 않았다. 기껏해야 팔이나 다리가 부러지는 꿈이었는데, 최근엔 연속해서 죽는 꿈을 꾸고 있다. 잠에서 깼 때마다 곧 죽을 것 같은 불안함에 떨어야 하지만 그래도 괜찮다. 죽음을 예고받고 피할 수 있다는 것은 얼마나 큰 축복인가.

숨이 차다. 나는 뛰고 있다. 계속해서 뒤를 돌아보고 있는 것을 보니 누군가에게 쫓기고 있는 꼴이다. 불이 들어오지 않는 고장난 가로등을 지나치고 또 지나친다. 막다른 길에 다다르자 그제서야 뒤에서 발소리가 들려온다. 굉장히 여유로운 발소리. 누군가를 쫓는 걸음이 아닌데 나는 쫓기고 있다. 뒤돌아 다가오는 이를 마주한다. 어두운 형체가 점점 다가오지만 나는 얼굴을 볼 수 없다. 구분할 수 없다. 그대로 나는 쓰러져 잠든다.

눈을 뜨고 그 얼굴을 그려보지만 도저히 떠오르지 않는다. 내가 죽는 장소가 어디였는지, 어떤 사람에게 죽임을 당하는 건지 알 수 없다. 이렇게 불명확한 예지몽은 처음이라서 굉장히 혼란스럽다. 그래도 괜찮은 것은 모든 경우의 수를 차단하면 된다. 집밖을 나서지 않는 것으로 죽음에 대비한다.

오늘따라 유난히 연락이 많이 온다. 집에 들리라는 부모님, 오랜만에 밥을 먹자는 친구, 헤어지지 얼마되지 않는 남자친구까지. 죽음이 나를 피어내는 것만 같다. 하지만 나는 속지 않는다. 모든 것을 알고 있는데 당해줄 순 없지 않는가. 그것도 다름아닌 죽음인데.

TV를 켜니 뉴스가 나온다. 어젯밤 가로등이 고장난 어두운 골목길에서 누군가가 살해를 당했다. 인터넷을 켜 뉴스를 찾았다. 이유를 알 수 없는 살인이었는데 댓글창을 열어 보니 원한을 샀을 거라니, 어두운 밤에 그 위험한 길을 혼자 돌아다니면 어쩌니, 고장난 가로등이 문제라느니 떠들어대고 있었다. 아니다. 그 어떤 것도 이유가 아니다. 그저 그 사람은 죽을 운명이었던 거고 그걸 피하지 못했을 뿐이다.

TV와 인터넷 창을 끈다. 핸드폰을 내려놓고 숨을 고른다. 내가 죽지 않았다는 안도감이 드는 순간도 잠시, ‘쿵’하고 심장이 내려 앉는다. 조여온다. 쓰러진다. 눈을 감는다. 오늘은 피하지 못했구나.